

01 교회소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

성도들이 성경 읽기와 기도로 집중함으로써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기도로써 변화와 생명으로 나오고 있다.

02 생명의 말씀

하나님은 빛이시라

누구든지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않고 오직 빛 가운데 살면 각종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 받을 수 있다.

03 기획특집

“일상으로 돌아온 자체가 감사죠”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환자기도로 오십견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에서 해방된 김재단 권사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

04 간증

삶 속에 가득한 권능의 증거

하나님의 권능으로 피부암과 시력저하를 치료받은 일리나 슈리코브 권사와 선천성 농이었던 귀가 열려 듣게 된 권미경 집사 간증.

만민뉴스

제860호 2018년 10월 21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기록하여짐이니라”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 및 성경 읽기대회

결실의 계절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기록하여짐이니라”(딤후 4:5)는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지난 10월 1일부터 두 달간 ‘전 성도 성경 읽기대회’가 열렸으며, 8일에는 42일간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가 시작되었다.

‘전 성도 성경 읽기대회’는 신·구약 성경 완독을 기준으로 교구별, 선교회별 단체시상이 있으며, 개인별 시상은 추첨을 통해 상품이 주어진다. 날마다 약 20장 정도 읽어야 완독할 수 있기에 성도들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성경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간증이 넘친다.



이정숙 집사(54세, 3대대 28교구)는 “평소 고개를 숙이면 뒷목이 당기고 턱이 저리던 증세가 있었는데 인내하며 성경을 읽으니 어느새 그 증세가 사라졌습니다”라고 간증했다.



허선식 집사(47세, 1대대 3교구)는 “직장에서의 근무 시간 외에는 모든 것을 자제하고, 잠자는 시간도 줄여 하루에 3~4시간씩 성경을 읽으니 하나님 사랑을 느끼며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김은비 자매(16세, 중3선교회)는 “학원에 다녀온 후 집에서 시간되는 대로 읽고, 학교에서는 점심 시간과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읽었더니 벌써 1독을 하여 마음이 뿌듯해요. 2독에 들어가니 말씀이 조금씩 더 마음에 들어오고 은혜가 되어 좋아요”라고 고백했다.



한편,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는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의 인도로 11월 18일까지 6주간 본당과 2성전, 각 지성전에서 진행되고 있다.



첫날인 10월 8일에는 영상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불세례에 관한 기도를 받았다. 그 뒤 임마누엘성가대와 닥시오 케스트라가 찬양과 연주를 하나님께 올리며, 엘리야처럼 불같은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42일간의 첫발을 힘차게 내디뎠다. 특별히 주의 종을 필두로 장로회, 남·여선교회, 지역장·조장·구역

장연합회, 권사회, 중등부·고등부연합회 등 각 선교회 일꾼들은 금식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간구하되 불세례를 받아 신속히 변화되고자 뜨거운 기도의 향을 올리고 있다.

10월 29일(월)에는 교역자회 회장 이수진 목사의 인도로 하나님께 사랑의 향을 올려 드리는 ‘특별찬양’ 시간이 있다.

‘다니엘철야’ 기도회는 매일 오후 8시 40분부터 준비찬양이 시작되고, 평일에는 밤 11시 40분까지(단, 금요일은 금요일예배) 주말에는 11시까지 진행되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로 개최된다. 전 세계 곳곳에서 GCN방송과 인터넷(www.gcntv.org) 생방송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시리즈 1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 요한일서 1:5 -

“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않고
오직 빛 가운데 거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풀리며
각종 인생의 문제들을 시원하게 해결 받을 수 있습니다”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아무리 어두움이 짙은 밤이라도 일단 태양이 떠오르면 어두움은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는 태양 앞에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과 축복이 임하며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도 빛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빛과 어두움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또한 우리가 어두움을 벗고 빛 가운데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질병이나 사염터, 가정의 어떤 문제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각종 문제를 해결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며, 무엇보다 소중한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이것이 참임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누구든지 빛을 따라 나오기만 하면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빛은 영적으로 어두움이 전혀 없는 영원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빛이란 영적으로 ‘하나님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최고의 완벽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

떤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 땅의 것으로 설명하고 나타내야 사람이 이해할 수 있기에 ‘빛’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2. 믿음, 선(善), 의(義), 영(靈), 빛과의 관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 배우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신앙 안에서의 믿음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육적인 믿음은 단지 성경 말씀을 들어서 아는 지식적인 믿음으로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말합니다. 반면 영적인 믿음은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을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서 산 믿음, 즉 행함이 따르는 참믿음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믿음을 소유하여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입니다. 즉 선 자체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모든 악의 모양을 버리고 오직 ‘선’을 이루는 것이지요.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선을 이루었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의’입니다.

여기서 의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

며 믿음을 좇아 순종해 나가는 것’으로, 내 생각이나 경험, 내 지식에 맞지 않아도 진리를 좇아 오직 “아멘” 하고 좇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변함 없이 의를 행해야 하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가령, ‘용서하라’는 말씀에 은혜를 받아 처음에는 용서하다가 자신의 유익에 맞지 않는 상황을 만나면 상대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는 내 안에 변하는 속성, 곧 욕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를 행치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으니 용서하되 끝까지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치 않는 영이며, 이런 영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랑이지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의의 행동도 바로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롬 5:18).

그러므로 ‘의’가 사랑을 통해 하나의 완성된 결정체로 나오게 된 것이 ‘영’이며, 영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행하는 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영의 모습이 모든 분야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가 바로 ‘온 영’이며(살전 5:23), 온 영을 이루면 행하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지요. 즉 ‘영’이 내면적인 속성을 표현한 것이라면, ‘빛’은 이 내면적인 것이 밖으로 나타났을 때의 속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 오시는 길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녀오실 때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가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가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우리가 태양을 가리켜 “태양”이라고 말하지만 막상 우리가 보는 것은 태양빛이지요. 즉 “하나님은 영이시니”(요 4:24)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온전한 영이신데 이 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온 영의 단계에 이르러야만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초신자라도 그 단계에 맞는 빛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착함이란 곧 ‘선’을 말하고, 의로움이란 선의 기준이 되는 ‘의’를 말하며, 진실함이란 곧 변함없는 ‘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빛의 열매에는 반드시 선이 나타나되 의의 행함이 변함없는 영의 모습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직 영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 사람에게 맞는 선의 단계의 모습이 의의 행함을 통해 나오지만, 육이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변할 여지가 있지요. 즉 “믿습니다” 하며 동일한 고백을 해도 각 사람마다 선과 의, 영과 빛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나 영의 단계에 이르면 상대를 감동시킬 만한 선이 변함없는 의의 행함을 통해 나타내고, 온 영으로 이루면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선의 마음으로 믿음과 순종과 행함의 의를 변함없이 행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믿음과 순종과 행함의 의를 변함없이 행했습니다. 마지막 관문이었던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에서도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고, 선 자체이신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을 만큼 온전한 선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주셨고, 그의 행함은 오늘날 믿는 우리 모두에게 빛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3. 빛과 반대되는 어두움에 속한 것들

이와 같이 빛에 속한 것들이 있는 반면, 빛과 반대되는 어두움에 속한 것들도 있습니다. 어두움은 한 마디로 죄에 속한 모든 것이 해당됩니다. 곧 육체의 일과 육신의 일, 그리고 자신이 보기에 의로 여겨지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 것들이지요.

예를 들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등의 육신의 일과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등과 같은 육체의 일들은 듣기만 해도 어두움이 느껴집니다. 반면 자기 보기에는 의로 여겨지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에 해당하는 것은 어두움이라고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빛으로 비추면 반드시 어두움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며 간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셨지요(마 16:21~23).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만류하는 것이 스승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어두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빛

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영적인 사랑과 팔복, 그리고 성령의 열매 등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4.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

먼저, 어두움이 좋고 빛이 싫기 때문입니다(요 3:19~20). 세상의 쾌락과 물질, 자기 유익을 좇아 사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진리와 선을 좇으라는 빛의 말씀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생각에 가려 오해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착하게 살면 되지, 왜 꼭 교회에 나가야 구원받느냐”는 것이지요. 이들은 신은 인정하지만 ‘왜 자신이 죄인이며, 주를 영접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실족당한 경우입니다. 간혹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거짓되고 가식적이기 때문에 교회에 안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만이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행한다면 이는 하나님과 상관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만일 이런 사람들을 보고 마음 문을 닫아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요. 믿음의 본이 되는 빛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5.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

하나님께서서는 분명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 약속하셨고, 또한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9:29).

빛이신 하나님께 나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질병이 떠나지 않고 사업터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등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 일까요? 본인은 빛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 실상은 빛 가운데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나오는 것과 빛에 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빛으로 나왔다 해도 모두 빛에 거하는 것이 아니지요. 다시 어두움으로 되돌아간다면 이는 결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미워하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마음을 잠시 돌이켰다가 시간이 흘러 예전처럼 다시 미워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빛에 거한다 해도 온전한 빛의 차원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빛으로 가까이 나오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온전히 빛에 거할 때 요한일서 3장 21~22절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 축복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않고 오직 빛 가운데 거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풀리며 각종 인생의 문제들을 시원하게 해결 받을 수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행할 뿐 아니라 온전히 빛 가운데 나와 빛의 열매를 맺으며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십견을 이렇게 신속하게 치료받다니요!”

김채단 권사 (46세, 1대대 3교구)

비가 많이 내리던 7월 1일(주일) 아침, 한 손에는 짐을 들고, 다른 한 손에 큰 우산을 들고 이동했는데 그날 오후부터 오른쪽 어깨가 살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됐나’ 싶었는데, 그날 밤 너무나 잠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느껴져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틀 뒤에는 팔을 전혀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되어 남편이 머리 감는 것을 도와주고, 딸이 머리 손질을 도와주어 겨우 출근 준비를 마쳤지요. 누군가 건드리기만 해도 비명이 나올 정도로 아파 잠을 설치니 두통까지 생겼습니다.

7월 4일(수) 초음파 촬영을 한 결과, 오십견으로 어깨에 염증이 심하게 생겨 관절에 물이 차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치료하려면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했지요.

저는 집에 돌아와 GCN방송으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뒤, 이어지는 환자기도를 정성스

럽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받고 나서 바로 팔이 스르륵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팔을 건드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기에 저는 너무나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오른쪽팔을 위로도 들 수 있었고, 그다음 날 저녁에는 완전히 나서서 팔을 아무리 돌려도 통증이 없고 정상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놀라워했지요.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 일상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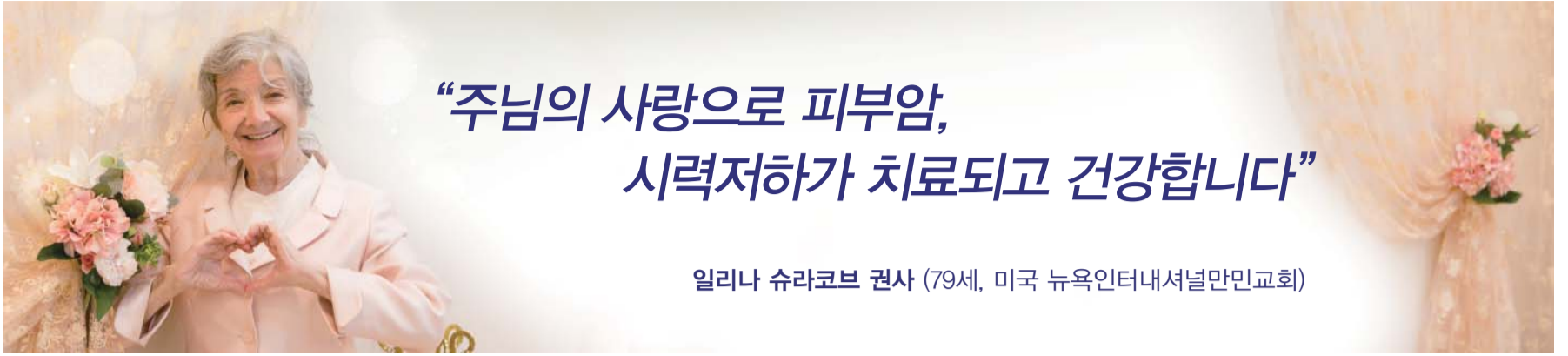
초음파 사진



▲ 기도받기 전: 어깨 관절낭 안에 염증으로 인한 진물이 고여 있어 통증을 유발하고 있음.



▲ 기도받은 후: 통증을 유발한 어깨 관절낭 안의 염증으로 인한 진물이 사라짐.



“주님의 사랑으로 피부암, 시력저하가 치료되고 건강합니다”

일리나 슈라코브 권사 (79세, 미국 뉴욕인터내셔널만민교회)

2006년 어느 날 저녁, TV 채널을 돌리던 중 우연히 뉴욕 공중파 채널17번에서 방송되는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였는데, 말씀이 너무 신선하고 흥미로웠습니다. 20년 넘게 교회에 다녔지만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영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이었지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던지 매일 퇴근하고 1시간씩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제 삶의 낙이 되었습니다. 그 뒤 만민의 지교회를 찾기 위해 알아보던 중, 비탈리 피쉬버그 박사님으로부터 뉴욕인터내셔널만민교회를 소개받아 2008년 10월부터 출석하게 되었지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권능의 역사들을 대하며 하나님께서 만민과 함께하

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GCN방송을 통해 만민중앙교회의 각종 예배를 드리며,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니 행복했지요. 감사하게도 2009년부터는 당회장님의 설교를 러시아어로 번역, 편집, 감수하는 일을 하면서 더욱 은혜가 넘쳤고,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옥』 책자를 통해 지옥의 참상을 깨달아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며 열기, 판단, 정죄 등을 회개하는 큰 은혜가 임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도 많이 읽게 되었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며 빛 가운데 행할수록 주님께서는 저의 질병과 연약함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잔병치레가 많은 데다 예순 살 때부터는 피부암으로 고통 받아 치료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소용

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뉴욕인터내셔널만민교회에 다니며 예배 때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받으면서 피부암이 치료되었고, 20년 동안 착용하던 안경도 벗게 되었습니다. 안경을 쓰지 않아도 휴대폰을 보고 성경도 읽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지금은 79세의 나이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매우 건강하여 올해 10월 초, 만민중앙교회 창립 36주년 때는 한국을 방문하여 장시간 걸어야 하는 시내투어도 거뜬히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이었는데, 해가 갈수록 성도님들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고 모든 면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깊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당회장님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양쪽 귀가 ‘뽕’ 뚫리면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권미경 집사 (51세, 3대대 24교구)

저는 태어날 때부터 양쪽 귀가 거의 안 들렸습니다. 부모님께서 아주 큰소리로 말씀하실 때만 미세하게 소리를 듣고 반응할 수 있었지요. 친구들에게 놀림 받기도 했고, 중학생 때부터 오른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해 보았지만 학업을 따라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장애 2급 판정을 받았지요.

2013년에는 보청기를 사용해도 청력이 계속 떨어져 오른쪽 귀에 ‘인공와우수술’(달팽이관을 대신하는 장치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인공와우보청기까지 착용했음에도 소리가 울려서 머리가 아프고 정확하게 들리지 않아 대화할 때 오해가 생기곤 하였지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았기에, 상대의 입모양을 보면서 대화하거나 수화로 의사소통을 해야 했습니다.

2015년, 친구 정미옥 집사의 전도로 만민의 양 떼가 되었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



며 지난날에 상처받은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것을 느꼈고,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확신하게 되었지요.

그러던 2018년 7월 초, 농아인선교회 지도교사인 조수열 목사님이 다가오는 하계수련회를 사모하며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그동안 하나님 뜻에 벗

어났던 모습들을 회개하고, 남편에게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것도 회개하며 남편과 화해하였지요.

8월 6일, ‘만민하계수련회’ 첫날, 감사 이수진 목사님이 단에서 해 주시는 환자기도와 더불어 단 아래에서는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님이 손수건(행 19:11~12)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순간 귀가 뜨거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양쪽 귀가 ‘뽕’ 하고 뚫리면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수화통역 없이도 예배 때 설교자의 목소리가 아주 또렷이 들리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옆 사람의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이고, 보청기를 빼고도 생활 속에서 각종 소리가 점점 잘 들리고 있어 매우 행복합니다. 재창조의 권능으로 치료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광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73-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7 ☎055)322-7055, 010-6605-2254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충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리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명로 168 ☎051)805-39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광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4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7-001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휴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자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김단자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자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자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대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자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8947-7017
- 분당자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자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8331-1136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역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의정부자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자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서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자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421-0899, 010-8927-2073
- 일산자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D ☎031)905-2419, 010-2352-8336